규장각 소장본『東學書』분석*

- 자료의 성격에 따른 분류를 통해 -

박 인 규**

1. 들어가며
2. 경전
3. 교리
4. 역사
5. 의식
6. 기타
7. 나가며

초록: 본 논문이 분석한『東學書』는 1900년 말 경 평안도 지역의 동학도들이 관에 피착될 때 압수된 관몰 문서를 위주로 하여 1907년 '自新會' 사건 때 압수된 문서가 섞여 편철된 규장각 소장 자료이다. 필자는 다양한 성격의 자료가 혼재되어 있는 이『東學書』를 동학의 경전, 교리, 역사, 의식, 기타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東學書』에는 경전과 관련하여 무자판『東經大全』을 무술년(1898)에 필사한 6권『東學聖經大典』, 계미 중춘판을 필사한 13권『東學聖經大典』, 계미 중춘판을 1899년에 필사한 14권『東學布德修德文』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교리와 관련하여서는 7권『東學呪文解義·儀式』, 8권『東學內修道』, 15권의『東學理氣大全』에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7권은『東經大全』의「座箴」·「八節」에 대한 해석과 주요 교리인 '守心正氣'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이 권에 실린「家和論」·「經脈論」은 다른 문헌에서 볼 수 없는 글로「家和論」은 동학도들의 가정 화목에 대해,「經脈論」은 강령(降靈)·강부(降符)·수심정기(守心正氣)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해월이 여성 신도들의 수칙과 수행에 대해 교설한「내칙」과「내수도」가 7권·8권·15권에 실려 있다. 8권의「빈궁샹율쟈」와 15권의「貧窮相恤章」은 곤궁한 사람을 서로 도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글로『東學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자료

* 이 논문은 2020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신진학자 초청 연구교류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종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이다. 15권에 실린 「理氣大全」은 동학의 사상을 담은 중요한 글로 『동학도종역사』에도 실려 있다.

셋째, 역사와 관련하여 수운의 행적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大先生主文集』이 2권 『雲水齋文集·通章』에 실려 있으며, 동학의 교단사로 활용될 수 있는 통문이 2권 『雲水齋文集·通章』과 12권 『東學敬通文』에 포함되어 있다. 2권에 실린 통문은 총 37건으로 교조신원운동이 전개된 1892년 10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교단사에 활용되는 대다수의 통문이 실려 있으며 1899년까지의 통문이 들어있다. 일부 통문은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워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12권에는 총 17건의 통문이 필사되어 있으며, 해월의 사후인 1899년과 1900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동학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의식과 관련된 자료는 3권 『東學呪文靈符』, 6권 『東學聖經大典』, 7권 『東學呪文解義·儀式』과 15권의 『東學書式』·『東學靈呪』에서 찾아볼 수 있다. 3권과 15권에서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 주문과 부적 등이 실려 있어, 당시 동학의 주술성이 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입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入道行實」·「修道映天之門」 등의 글은 당시 동학의 입문자가 어떻게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7권에서도 「入道式」·「祭需式」 등의 문건을 통해 입도식과 제수의식을 어떻게 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다. 또 15권의 「食飮告」를 통해 주요 수행인 '식고'에 대해 알 수 있고, 입도식 축문을 통해 입도할 때의 축문과 진설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초기동학의 주요 수행인 탄부에 대해서도 「祈禱呑符式」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다섯째, 기타로 분류된 문서 중 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문서는 '자신회' 사건 관련 문건으로 관련 분야의 역사 및 대종교 연구에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특히 초기동학의 종교적 실천인 의례와 관련하여 본 『東學書』가 동학 연구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당시 평안지역의 동학도들이 필사한 문건으로 그 시기 동학도들이 종교적 실천을 어떻게 하였는지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된 후속 연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핵심어 : 동학, 동학서, 동경대전, 동학 통문, 동학 의례, 나철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동학 관련 문헌인『東學書』(奎17295 v.1-30)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東學書』는 규장각 소장 유일본으로 주문과 영부와 관련하여 일정 부분 연구가 이뤄졌으며,[1] 1985년 여강출판사에서 영인본도 나온 바 있다.[2] 동학 연구에 있어서『東學書』가 주요한 자료라 평가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문헌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연구가 미진하다.[3] 이『東學書』에는 동학 관련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다수 실려 있어 동학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여타의 자료와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 자료의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먼저 자료의 체제와 성격을 규명하는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기본적인 해제는 규장각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아 좀 더 상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연구 자료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東學書』를 어떻게 학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東學書』는 관몰 문서이다보니 압수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성격의 동학 관련 자료가 섞이게 되었다. 관에서 입수하게 된 과정과 관련하여 김지연은『司法稟報』에 관련 기록이 있음을 언급하였다.[4] 관련 기록을 좀 더 살펴보면『司法稟報 乙』28권에 실린「報告書 第十五號」에서 발신자는 '平安北道裁判所判事 李道宰'이고 발신일은 '光武五年二月十七' 즉 1901년 2월 17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관하의 영변에 거주하는 강성탁[5]·박지화·강병업·박종근과 태천에 거

1) 이찬구, 2001「동학의 ᄒᆞᆫ늘님(천주)에 관한 연구: 영부와 주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김지연, 2005「東學의 呪文과 靈符의 해석」,『동학연구』18.

2) 이이화 해제, 1985『東學文書』, 여강출판사.

3) 박병훈, 2016「신종교」, 최종성 외,『종교 관련 규장각 소장 자료의 연구: 규장각 자료를 이용한 연구 성과 조사·정리 지원 결과 보고서』, 2016년 한국학연구 클러스터 구축사업, 75-76면.

4) 김지연, 앞의 논문, 84면.

5)『司法稟報 乙』에는 '강성탁(康聖鐸)'이라 하였지만,『동학사』·『동학도종역사』·『천도교서』

주하는 이정점, 박천에 거주하는 고강태 등이 영남의 동학괴수 손규동(손병희)·손천민 등으로부터 도를 받았다고 칭하며 사교를 전파하기에 순검을 파견하여 붙잡으려 하였고 그중 강성탁 등을 체포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주문, 통문, 錄名冊을 압수하여 살펴보니 녹명책에 적힌 교도수가 262명이라고 하였다.[6] 이 내용을 통해 이 문서가 작성된 1901년 2월 이전 평안도에서 동학도들이 체포되고 동학 관련 문서가 관에 압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어떤 경위로 해당 문서가 『東學書』로 편철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때 녹명책을 태워버렸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로 『東學書』에는 녹명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7]

오지영의 『동학사』에는 최시형이 관에 붙잡혀 刑死하였다는 기사 다음에 "寧邊道人 康聖澤은 官兵의게 잡힌바 되엿는데 觀察使 李道宰는 말하되 … "[8]라고 하여 『司法稟報』에 언급된 강성택의 포착과 처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강필도의 『동학도종역사』에는 "是歲十二月五日, 東學指嫌日甚, 平北寧邊觀察使李道宰, 東學接主康聖澤, 受砲刑慘殺.(이해 12월 5일, 동학을 혐오한다고 지목함이 날로 심해졌다. 평북영변관찰사 이도재가 동학 접주 강성택을 포형을 받게 하여 참살하였다.)"[9]라 하여 강성택이 1900년 12월 5일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어 그전에 붙잡혀 문서가 몰수된 것으로 보인다. 표영삼도 『동학서』 2권 안의 『대선생주문집』이 『동학서』에 포함되게 된 경위를 밝힐 때,[10] 그리고 『東學書』 8권에 있는 '니칙이라', '니슈도 하는법이라'에 대해 언급할 때 1900년 12월경에 관에서 몰수해 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1]

에는 '강성택(康聖澤)'이라 되어 있다. '강성택(康聖澤)'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6) 『司法稟報(乙)』 28, 「報告書 第十五號」, "管下寧邊居 康聖鐸 朴枝華 康炳業 朴宗根과 泰川居 李貞漸 博川居 高江奉等이 稱以受道於嶺南東魁 孫圭東 孫天民及龍罔居 洪基兆 洪基億等處이다이고 傳佈邪敎에 註誤愚氓之說이 至及岐廉이옵기 卽派巡檢ᄒᆞ야 一幷推捉이올더니 李貞漸 朴枝華ᄂᆞᆫ 出往嶺南未還에 不得捉待이옵고 康聖鐸 康炳業 朴宗根ᄲᆞᆫ 押待而漢家現存之呪文與通文及錄名冊을 搜入考閱이온즉 敎徒之錄入名數가 合爲二百二十六人"

7) 『司法稟報(乙)』 28 「報告書 第十五號」, "錄名冊을 府庭燒火ᄒᆞ야 使之安心安業케ᄒᆞ옵고"

8) 오지영, 1973 『동학사』, 서울: 아시아문화사, 193면.

9) 강필도, 『동학도종역사』, 177면.

10) 표영삼, 2014 『표영삼의 동학이야기』, 서울: 모시는사람들, 228면.

이렇게 1900년 말 경에 평안도 지역의 동학도들이 관에 피착되면서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동학 문서들이 관에 압수되었고 이후 편철되어 어떤 경위로 규장각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 평안도 지역은 갑오동학농민운동 이후 교세가 활발하게 일어나 이후 천도교의 중심세력이 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 정치·사회적으로 두드러진 활동을 한 곳이다.[12] 동학이 평안도 지방에 전래된 것은 1879년 6월경으로 이후 189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입교하여 활발한 교세를 전개하였다.[13] 곧『東學書』는 이러한 평안도 지역에서의 동학의 양상을 담고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외『東學書』를 분석해보면, 1907년 나철·오기호 등이 自新會를 결성하여 을사오적을 살해하려고 시도하다가 검거된 후 압수된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즉 1900년 말 동학도들이 피착되면서 압수된 문서와 1907년 자신회 사건에서 압수된 문서(9권『東學文書』, 16-29권『東學文書』)가『東學書』라는 제목으로 정리된 것인데, 이는 편철자의 오류로 보인다.

『東學書』는 총 3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권은『東學呪文靈符』, 2권은『雲水齋文集·通章』3권은『東學呪文靈符』, 4권은『東學徒上疏文 上』, 5권은『東學徒上疏文 下』, 6권은『東學聖經大典』, 7권은『東學呪文解義·儀式』, 8권은『東學內修道』, 9-11권은『東學文書』, 12권은『東學敬通文』, 13권은『東學聖經大典』, 14권은『東學布德修德文』, 15권에는『東學理氣大全』·『東學書式』·『東學靈呪』, 16권-29권은『東學文書』, 30권은『上疏文·單子』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문서가 혼재되어 있고 권의 차례도 성격에 따라 분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東學書』의 전반적인 특징과 문헌적 성격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필자는 이를 1) 경전, 2) 교리, 3) 역사, 4) 의식, 5) 기타의 5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아래 도표에 각 권이 어떤 성격에 해당되는지 정리해보았다.

---

11) 위의 책, 267면.

12) 조규태,「구한말 평안도지방의 동학: 교세의 성장과 성격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동아연구』21,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49-50면.

13) 위의 논문, 51면.

〈표 1〉 각 권의 분류

권	권명	성격
1	『東學呪文靈符』	기타(육유, 형거실, 이백의 시)
2	『雲水齋文集 · 通章』	역사(『대선생주문집』, 통문)
3	『東學呪文靈符』	의식(동학의 주문과 영부)
4 · 5	『東學徒上疏文 上』, 『東學徒上疏文 下』	기타
6	『東學聖經大典』	경전
7	『東學呪文解義 · 儀式』	교리/의식
8	『東學內修道』	교리
9-11	『東學文書』	기타(나인영 사건 관련)
12	『東學敬通文』	역사
13	『東學聖經大典』	경전
14	『東學布德修德文』	경전
15	『東學理氣大全』 · 『東學書式』 · 『東學靈呪』	교리/의식
16-29	『東學文書』	기타(나인영 사건 · 동학)
30	『上疏文 · 單子』	기타

2. 경전

『東學書』에 담긴 제1권부터 제30권까지의 문서 중 동학의 경전 관련 권은 6권 『東學聖經大典』, 13권 『東學聖經大典』, 14권 『東學布德修德文』이다.

6권은 『東學聖經大典』은 1쪽 시작에 '聖經大全'이라 기록되어 있다. 글의 순서는 「布德文」 · 「論學文」 · 「修德文」 · 「不然其然」 · 「呪文」 · 「祝文」 · 「絶句」 · 「八節」 · 「訣」 · 「和決詩」 · 「歎道儒心急」 · 「興比歌」 · 「偶吟」 · 「座箴」 · 「詠宵」[14] · 「題書」 · 「筆法」

14) 규장각 해제에는 '詠예'라 되어 있어서 수정되어야 함.

·「流高吟」[15]·「偶吟」·「通文」·「通諭」·「通文」·「布德式」·「入道式」·「致祭式」·「祭需式」으로 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聖經大全 終'이라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글이 더 첨부되어 있는데 규장각 해제에는 "卷末에는 崔濟愚·崔時亨의 名·字·號 및 生沒年月日과 布德祝文·設位圖·天降六任·童蒙六任·乙酉天降書 등이 있다. 東學의 敎理와 儀式 등을 모은 것이다."라 하였다. 권의 끝에는 "戊子季春 北接重刊 戊戌 仲春 初五日 酉時 林仲七 書終"이라 되어 있다. 즉 이 6권의 문서는 林仲七이라는 동학도가 무술년(1898년) 음력 2월(중춘) 5일 유시에 무자년(1888)판『東經大全』을 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6권『東學聖經大典』을 필사한 원본인 무자판『東經大全』과 비교해보면, 무자판『東經大全』에는 없는 통문(통유 다음)이 더 들어가 있으며 권말의 내용이 부가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권에 추가된 통문은 여타의 동학 관련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그 내용은 마음을 정하여 끝까지 정성을 다해 일을 성취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16] 부가된 내용에서 '布德祝文'은 입도 의식에서 사용되는 축문으로 "龍

15) 규장각 해제에는 '琉高음'이라 되어 있어서 수정되어야 함.

16) 원문은 "蓋木之根不固, 則不免遇風顚倒, 水之源不渫, 則不能盈科前進, 根固以後能茂其枝, 源渫以後能朝于海, 人之心意如此焉, 心不定, 則猶預未決, 事不成就意不成, 則始終不一, 理無感應, 竊尙論之, 遐鄕之人欲入京城, 來裝登程, 或臨水難渡, 當岑難踰, 見歧生疑, 不進而退者, 是心不立者也, 又或有臨水能渡, 當岑能踰, 見歧能向, 然不耐日遲中路還者, 此意不誠者也, 中有不顧日久, 中路不憚勞苦, 行之又行, 終入京城者, 是心立意誠之人也, 況此无極之道, 豈可心不立意不誠行之乎, 惟我僉尊勉勉孜孜不忘一念奉事, 無棄九仞之井, 勿虧一簣之功, 以效木之茂枝水之朝海, 千萬幸甚.(대저 나무의 뿌리가 공고하지 않으면 바람을 만나 넘어지는 것을 면할 수 없고, 물의 원천이 흐르지 않으면 구멍을 채우고 나아갈 수 없다. 뿌리가 공고한 이후에 가지가 무성할 수 있고 물이 흐른 후에 바다로 흘러갈 수 있다. 사람의 마음과 뜻도 이와 같다.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은 것과 같아서 일은 성취가 없고 뜻도 이뤄지지 않는다. 즉 시종일관하지 않으며 진리가 감응하지 않는다. 이를 논의해보자. 먼 지방의 사람이 서울에 가려고 하면 옷차림을 갖추고 길에 오른다. 혹 물을 만나 건너기 어렵거나 험한 산을 만나 넘기가 어려울 때 갈림길을 보면 의문이 생겨서 나아가지 않고 물러나는 사람은 마음이 서 있지 않은 사람이다. 또는 혹 물을 만나지만 건널 수 있고 험한 산을 만나고 넘을 수 있으며 갈림길을 보고 향할 수 있으나 기간이 지체함을 참지 못하고 중도에 돌아가는 사람은 뜻이 정성스럽지 않는 사람이다. 중간에 기간이 오래 걸림을 고민하지 않고 중도에 수고스러움을 꺼리지 않으며 가고 또 가

潭 大先生主 无極大道大德 无爲化氣 永侍布德 爲天主顧我情 永世不忘 萬事宜 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北接 大道主 无極大道大德 无爲化氣 奉命布德, 西關 大接主 金裕永 无極大道大德 无爲化氣 奉敎布德, 龍岡接主 洪基兆 无極大道大德 无爲化氣 奉敎布德, 某邑 某面洞 居具 姓名 无極大道大德 无爲化氣 奉敎布德 某年 月日"이라 쓰여 있다. 동학의 교주와 접주의 순으로 용담 대선생주 수운 최제우, 북접 대도주인 해월 최시형, 서관 대접주 김유영, 용강 접주 홍기조가 언급되어 있어 홍기조를 접주로 하여 동학에 입도할 때의 축문인 것이다.

「乙酉天降書」는 해월이 1884년 10월에 降乩 받은 글[17]로 현재 천도교 경전에 실려 있는『海月神師法說』의「降書」와 대동소이하다. 몇 문장이 앞뒤의 순서가 바뀌어 있고 몇 문장은『海月神師法說』에 없는 내용이다. 7권에도「乙酉天降書」가 실려 있는데 6권의「乙酉天降書」에 비해 내용이 절반 정도이며 뒷부분의 내용은 계미 중춘판『東經大全』마지막 부분에 쓰여 있는「통유」와 거의 유사하다.

13권은『東學聖經大典』이란 표제로 편철되어 있으며 표제 옆에 '李錫華'라 쓰여 있다. '李錫華'는 경전의 필사자로 보이며 마지막에 '癸未仲春 北接重刊 東經大全終'이라 기록되어 있다. 곧 계미 중춘판을 필사한 것이며 원본과 동일하다.

14권은『東學布德修德文』이라 편철되어 있고, 권의 시작에 '亥年 亥月 亥日 吳○○ 聖經大全'이라 하였으며, 마지막에 '聖經大全 終'이라 되어 있다. 亥年을 1899년 기해년이라 추측할 때 1899년 음력 10월경에 필사된 것이라 추정되며, 吳○○가 필사자로 보인다. 어떤 판본을 필사하였는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무자판에 실려 있는「유고음」,「우음」이 실려 있지 않고「필법」,「통문」,「통유」의 순으로 되어 있어 계미 중춘판을 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본과 비교할 때 일부 순서가 뒤섞여 있다.

서 마침내 서울에 도착하는 사람은 마음이 서 있고 뜻이 정성스러운 사람이다. 하물며 이 무극지도에 어찌 마음을 세우지 않고 뜻을 정성스럽게 행하지 않음이 가할 것인가? 오직 우리들은 애쓰고 힘써서 잊지 않고 일념으로 봉행할 일이다. 아홉 길의 우물을 포기하지 말고 한 광주리의 공을 일그러뜨리지 말라. 나무에서 가지가 무성한 것과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본받으면 천만 다행이겠다.)"

17)『大先生事績』「海月先生文集」, 66면.

여기서 '聖經大全'이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살펴보겠다.『東經大全』의 판본을 살펴보면 1880년 간행된 경진판은 발견되지 않아 그 표제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883년 간행된 계미 중춘판의 표제가 '東經大全'으로 되어 있고, 계미 중하판의 표제도 '東經大全'으로 되어 있다.『東學書』13권의 표제는 '東學聖經大典'으로 되어 있으며 계미 중춘판을 필사한 것으로 마지막에 '東經大全 終'이라 기록되어 있다.『東學書』 14권은 『東學布德修德文』인데 시작에 '聖經大全'이라 하였고 마지막에 '聖經大全 終'이라 되어 있다. 윤석산은 이런 점들을 들며 1890년대에 이르러 동학 교단에서는 '東經大全'을 '성경대전'이라고 부른 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18] 미국 남장로교 출신 선교사로 1892년에 내한하여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William M. Junkin은 1895년 작성한 글에서 최제우가 만든 경전이 '성경대전'이라 불렸다고 하였는데,[19] 이 점에서 당시 '성경대전'이란 명칭이 널리 쓰였던 것이라 추측된다.

3. 교리

『東學書』에서 동학의 교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7권『東學呪文解義·儀式』, 8권『東學內修道』, 15권[20]의『東學理氣大全』이다.

먼저 7권을 살펴보면, 7권은「本呪文解義」·「座箴解義」·「守心正氣解義」·「八節解義」·「家和論」·「經脈論」·「乙酉天降書」·「布德式」·「入德式」·「祭需式」·「內修道」·「每日上法水法式」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즉 동학의 주요 교리에 대한 해설과 입교의식 등의 의식 및 여성 신도들의 수행[內修道]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중 동학의 교리 관련 부분은「本呪文解義」·「座箴解義」·「守心正氣解義」·

18) 윤석산, 2014『일하는 한울님-최시형의 삶과 사상』, 서울: 모시는 사람들, 339면.

19) William M. Junkin, 1895 "The Tong Hak", *The Korean Repository* V.2, Seoul: The Trilingual Press, p.57.

20) 15권은『東學理氣大全』,『東學書式』,『東學靈呪』의 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八節解義」·「家和論」·「經脈論」·「乙酉天降書」·「內修道」이며, 나머지 부분인 「布德式」·「入德式」·「祭需式」·「每日上法水法式」은 동학의 의례와 관련된다.

「本呪文解義」는 "侍者父母元氣, 主者極尊極敬, 造化者身體髮膚, 定者主宰曰心, 永世者循環無窮, 不忘者一念在玆, 萬事者一理中散, 知者本然之理"[21]라 되어 있다. 이는 동학의 21자주의 '本呪文'인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의 각 글자에 대한 해설이다. 『東經大全』「논학문」에도 이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와는 사뭇 다르다.[22]

「座箴解義」는 "誠者克己所慾, 敬者一事一物, 信者死生得所"[23]라 적혀 있다. 이는 『東經大全』「座箴」에 있는 誠·敬·信에 대한 해설이다. 「守心正氣解義」는 "守心者落席初赤子心也, 守以勿失者也, 正氣者胞胎時一氣也, 喜怒哀樂不奪不携者也"[24]라 하였다. 「八節解義」는 『東經大全』「八節」의 해의로 "明者日月合精, 德者無爲而化, 命者萬物之惟, 道者萬劃一默, 誠者有始有終, 敬者無偏無倚, 畏者耳目雷電, 心者暗明之主"라 하였다. 이는 『東經大全』「八節」의 '明·德·命·道·誠·敬·畏·心'의 글자에 대한 해설이다. 이 「座箴解義」·「守心正氣解義」·「八節解義」는 동학 관련 여타의 문헌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

그 다음에 기록된 「家和論」은 군자의 도는 부부의 화합에서 비롯되고 부부의 화합이 천지의 본성으로 형제·친구·국가로 확대된다고 하여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을 말하고 있다. 이 글은 다른 동학 관련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오직 이 『東學書』에서만 수록되어 있다.

---

21) "侍는 부모의 元氣이고, 主는 지극히 존경함이며, 造化는 신체발부요, 定은 마음을 주재함이고, 永世는 무궁하게 순환함이며, 不忘은 일념이 여기 있음이고, 萬事는 하나의 진리 가운에 펼쳐짐이며, 知는 본연의 진리이다."

22) 「논학문」에는 "侍者內有神靈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 主者稱其尊而與父母同事者也, 造化者無爲而化也, 定者合其德定其心也, 永世者人之平生也, 不忘者存想之意也, 萬事者數之多也, 知者知其道而受其知也."라 되어 있다.

23) "誠은 욕망을 이겨냄이요, 敬은 일사일물이며, 信은 죽음과 삶이 그 자리를 얻음이다."

24) "守心은 자리에 때어난 갓난아이의 마음이요, 지켜서 잃지 않음이고, 正氣는 포태될 때의 一氣이며 희노애락하여 빼앗기거나 흩어지지 않음이다."

「經脈論」도 여타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글로 작자는 알 수 없다. 降靈과 降符의 의미 그리고 守心正氣의 이치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데 특히 강령과 강부에 대해 교의적 해설을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무릇 우리 도에서는 포덕할 때에 마음을 닦고 기를 바르게 하며 송주하면 즉 降靈하고 降符하게 된다. 궁을의 형상은 형용하거나 헤아리기 어렵다. 그러나 격물하면 알지 못하는 바가 없고 병에 쓰면 효험이 없는 바가 없다. 이는 역시 궁을 조화의 자취로 천하에 밝게 드러난다. 강령은 부모가 포태할 때에 天靈이 강림한 기운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근본이 화생하는 이치를 보고 알게 한다. 강부는 대도가 처음 시작한 운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먹고 이로움을 헤아리게 하는 길이다. 아! 각처 도우들의 소문에 그 조화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헛된 욕망이 만드는 것이다. 허령은 창창하여 능히 조화를 쓸 수 있으며 참 같지만 참이 아니니 이는 어떤 이유에서인가? 守心正氣는 조화의 이치가 있는 곳이며, 放心散氣는 조화의 이치가 없는 곳이다. 비유를 들어 말하면 금강산 만물의 형상은 그 관찰자에 따라 천태만상으로 형상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石 자 한 글자가 우리 도의 心 자 한 글자와 어찌 다르겠는가? 강령의 법은 공자의 문파이며 舞蹈의 이치이다. 강부의 법은 복희의 괘이며 점획의 이치이다. 수심정기 4글자는 允執厥中과 建中建極의 이치이다. 이에 대도의 見性은 이것 바깥에 있지 않다.[25]

강령과 강부를 주술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유가의 성인인 공자와 복희에 연원한다고 하는 점이 독특하다. 또한 강령과 강부를 동학의 송주 수행에만 연관하지 않고 강령은 부모가 아이를 포태할 때 천령의 강림으로 강부는 동학의 창도될 때 상제가 최제우에게 내린 영부로 각각 설명하고 있다. 수심정기 또한 유가의 가르침인 允執厥中·建中建極의 이치와 연결하고 있다.

---

25) "夫吾道布德時, 乃修心正氣誦呪文, 卽降靈降符, 弓乙其形難形難測, 然格物則無所不知, 用病則無所不效, 是亦弓乙造化之跡, 昭然于天下也, 降靈者父母胞胎時, 天靈降臨之氣, 令人目睹知其本化生理也, 降符者大道始創之運, 令人服心推利之路也. 噫! 各處諸益聞風, 而入知其造化, 虛慾所工, 虛靈蒼蒼, 能用造化, 似眞非眞, 是何故耶? 守心正氣則造化理之所在, 放心散氣則造化理之所無, 比云金剛山萬物形, 隨其觀者, 千變萬幻, 無所不形, 然而究其本, 則石一字, 何異於吾道之心一字乎? 降靈之法, 孔子之門, 舞蹈之理也, 降符之法, 伏羲之卦, 點畫之理也, 守心正氣四字, 允執厥中與建中建極之理也, 於是乎, 大道之見性不外乎此."

「乙酉天降書」에 대해서는 앞에서 논의하였고, 「內修道」는 현재 천도교의 「내수도문」의 한문본으로 여성 동학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수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영삼은 「내칙」과 「내수도문」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규장각에 소장된 『동학문서』 중에 수록된 「내칙이라」와 「내수도하난 법이라」는 글이 원본에 가깝다."[26]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 문건은 평안남도 용강 대접주 홍기조·홍기억 두 분 관내에서 몰수된 문건이다. 1900년 12월경에 관에서 몰수해 간 것으로 여겨진다. 「내칙이라」, 「내수도하난 법이라」는 글을 필사한 것은 언제인지 확실치 않다. 그러나 1896년(포덕 37) 12월과 이듬해 1월까지 두 분은 상주 화서면 높은터로 해월 선생을 찾아간 적이 있다. 이때 여러 문건을 필사해 왔다. 「내칙이라」는 글과 「내수도하난 법이라」는 글도 그곳 도인에게 부탁하여 필사해 온 것이 아닌가 싶다."[27]라고 문건의 경위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8권도 『東學內修道』로 규장각 해제에는 "內則·內修道·貧窮相恤者 등 女子의 行道修則을 한글로 썼다."라 되어 있지만 안을 살펴보면, 「닉칙이라」, 「닉슈도 하는법이라」, 「팔졀」, 「빈궁샹율쟈」, 「팔졀」의 순서로 되어 있다. 「닉슈도 하는법이라」의 말미에는 '경자 정월 초십일 구롱접듕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1900년 정월에 기록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내수도」와 「내칙」과 관련하여 정리해보면, 7권 『東學呪文解義·儀式』에 한문으로 「內修道」가 실려 있으며, 8권 『東學內修道』에 한글로 「닉칙이라」, 「닉슈도 하는법이라」가 기록되어 있다. 15권의 『東學理氣大全』에도 「닉측이라」와 「닉수도ᄒᆞ난볍이라」가 한글로 실려 있다.

8권의 첫 번째 「팔졀」은 "부디명지소지원불구이슈아 부디덕지소지뇨오신지화싱 부디명지소지고오심지명명 … 부디심지득실지금사이작비"라 되어 있으며 『東經大全』 「八節」의 한문 발음을 기재한 것이다. 두 번째 「팔졀」은 "명쟈는 일월합졍이요, 덕쟈는 무위이화요, 명쟈는 만물찌셩이요 … 심쟈는 암명지쥬라"고 되어 있으며 7권 『東學呪文解義·儀式』에서의 「八節解義」와 내용상 같다.

8권의 「빈궁샹율쟈」는 『東學書』에서만 발견되는 한글 문서로 곤궁한 사람이 서

26) 표영삼, 2014 앞의 책, 267면.

27) 위의 책, 267면.

로 도와야 함을 설하고 있다. 15권의『東學理氣大全』에는 한문으로「貧窮相恤章」이 기재되어 있다. 1891년 10월에 해월이 통유 10조를 지어 동학도들에게 권고하게 경계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5번째 조항이 '貧窮相恤'이었다고 하는 기록[28]에서, 1891년 10월경 작성된 문건이라 추측된다.

15권은 『東學理氣大全』·『東學書式』·『東學靈呪』의 3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東學理氣大全』에는「理氣大全」으로 시작으로「ᄂᆡ측이라」와「ᄂᆡ수도ᄒᆞ난볍이라」가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銘心奉行及」과「貧窮相恤章」이 있다.「理氣大全」은 일찍이 신용하가 그 자료적 가치에 주목한 바가 있다. 신용하는「理氣大全」이 지금까지 발견된 자료 중 동학의 존재론적 철학사상을 가장 자세하고 요령 있게 설명하고 있는 자료라 평가하면서, 네 가지 근거를 들어「理氣大全」이 최시형의 저작이고 손천민이 받아 쓴 것이라 하였다.[29]『동학도종역사』'제10장 이기대전급대인접물장(理氣大全及待人接物章)'에도「이기대전」이 실려 있으며,『동학농민운동 국역총서 11』에『동학도종역사』가 국역되어 있어「이기대전」[30]의 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銘心奉行及」[31]은 수운의 교설과 해월의 교설인 내칙·내수도를 잘 익혀 대도를 빛나게 하고 천지부모에 효도할 것을 당부하는 짧은 글이다.

4. 역사

『東學書』에 수록된 교단사와 관련된 자료라 할 만한 것은 2권『雲水齋文集·通

28) 박정동, 1915『시천교종역사』, 경성: 시천교본부, 79면, "師作通諭十條, 勸戒門徒, 一曰明倫, 二曰守信, 三曰守業, 四曰臨事至公, 五曰貧窮相恤, 六曰男女嚴別, 七曰重禮法, 八曰正淵源, 九曰講眞理, 十曰禁淆雜, 其略曰."

29) 신용하, 1980「동학 제2대 교주 최시형의『이기대전』」,『한국학보』6-4, 152-153면.

3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3『동학농민운동 국역총서 11』,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78-86면.

31) "大先生則大全四篇諭辭八編, 特爲忘略記出, 而至於海月先生四十年工夫, 只此內則內修道兩篇諺書已, 而此非豈吾師之道法實旨乎, ○視此兩篇者, 蔽一言, 无誰某盡是不孝子也, 十分警惕, ○參聖德照彰大道, 孝了天地父母事."

章』과 12권 『東學敬通文』이다. 먼저 2권을 살펴보면, 『大先生主文集』과 동학의 여러 통문[32]을 모아 놓은 부분으로 크게 나눠진다. 규장각 해제 이외 『동학농민운동 국역총서 13』에 실린 해제에는 『水雲齋文集』이라 되어 있지만, 실제 권명에는 『雲水齋文集 · 通章』이라 편철되어 있다. 이는 편철자가 '水雲'을 '雲水'라고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시작은 『大先生主文集』이라 되어 있다. 『大先生主文集』과 여러 통문 모두 필체가 같아 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권 말미에 '庚子元月念肆日 午時 龍岡 林仲七 獲麟'이라고 되어 있어 1900년 정월에 용강의 임중칠(林仲七)에 의해 필사된 것을 알 수 있다.

『大先生主文集』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박맹수는 『水雲齋文集』을 『도원기서』와 비교하면서 "『水雲齋文集』의 내용과 『도원기서』 전반부를 점하고 있는 수운의 일대기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점에서 『水雲齋文集』은 『도원기서』 전반부의 내용을 필사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33]고 보았다. 표영삼은 "해월선생은 『최선생도원기서』를 견봉하고 나서 수운 선생의 창도 부분만 따로 떼어 『대선생주문집』이라는 책자를 만들었다. 규장각 소장 『동학문서』 중에 그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다. 이 『대선생주문집』은 평남 용강군 대접주 홍기조 등이 1896년에 상주군 은척원으로 해월 선생을 찾아갔다가 필사본 한 권을 얻어왔다고 여겨진다."[34]고 분석하였다. 그는 특히 규장각에 옮겨지게 된 경위를 "『신인간』(통권 29호, 1928년 11월호)에 의하면 1896년 11월에 평남 용강 대접주 홍기조, 홍기억과 임복언 3인이 해월 선생을 만나보려고 길을 떠났다. 일단 이종훈이 있는 경기 광주까지 와서 며칠 쉬었다가 정암의 안내로 은척원으로 갔다고 한다. 아마도 이때 필사된 『대선생주문집』 한 권을 얻어왔는데 1900년 1월에 임중칠이 다시 필사했다. 경위는 알 수 없으나 1900년 12월에 관이 몰수해 갔으며 후일 규장각으로 옮겨지게 되었다."[35]고

32) 박영학은 동학의 보은대집회와 같은 대집회가 조직될 수 있었던 것은 공시망을 통한 통문제도에 힘입은 것이라 보았다. 동학운동에서 통문은 유력한 공시매체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박영학, 1994 「19세기 동학통문 연구」, 『한국언론학보』 32, 한국언론학회, 155.

33) 박맹수, 1990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와 그 이본에 대하여」, 『한국종교』 15,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46면.

34) 표영삼, 2014 앞의 책, 227면.

하였다.

2015년 간행된『동학농민운동 국역총서 13』에는『大先生主文集』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다. 해제자인 이이화는『大先生主文集』은 천도교중앙총부가 소장하고 있는 필사본과 규장각 소장본(용강본)의 두 종이 전해지고 있으며 두 필사본의 내용은 동일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이화는『대선생주문집』이『최선생문집도원기서』에서 대신사 도원 부분을 따로 떼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수운의 순도 이후 1865년경에 누구에 의해 집필된 것이 전해 왔는지 분명치 않다고 않지만 후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36]

논의를 정리해보면, 박맹수와 표영삼은『도원기서』가 먼저 기록된 것이고『도원기서』에서 수운 관련 부분을 발췌해『대선생주문집』이 편찬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이화는 수운의 순도 이후 누군가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어느 설이 맞든지,『대선생주문집』은『도원기서』와 더불어 수운의 행적과 종교 활동을 담고 있는 주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다음 2권과 12권에 실린 여러 통문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2권의 통문을 아래 도표를 통해 정리하였다.

〈표 2〉 2권의 통문

번호	제목	날짜	발송인	내용	비고
1	立議謹通	?	해월로 추정		기존의 해월의 유문에서 찾아볼 수 없음
2	敬通曉明道心	丙申 元月日(1896)	奉分付 誠菴 密通	呪文과 八節과 大全과 諭辭와 ᄂᆡ마음과 하날이 ᄒᆞᆫ덩어리 … ᄒᆞᆫ옵기를 千萬幸甚甚	주문, 팔절, 東經大全 등 교리에 대해 통지
3	偶吟詩	의암의 詩文			

35) 위의 책, 228면.

3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5『동학농민운동 국역총서 13』,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해제.

4	太古兮	丙申 元月 日	龜庵 火菴 一水 奉分付 謹通	天皇氏 … 思山仰海祝	『해월신사법설』 「명심수덕」과 유사.
5	一愚者 … 聖門切仰切仰	?	?	一愚者擅權取雜奸狡從中弄奸道之大不祥 … 聖門切仰切仰	입도 후 수행에 있어서 믿음을 돈독히 할 것.
6	通諭	『해월신사법설』「道訣」			
7	敬通	丙申 3月 日	龜庵 義庵 松庵 奉分付 謹通	一有夫女之通奸罪 … 千萬幸甚	남녀 윤리에 대한 통지
8	踐實勸學文	강필도, 『東學道宗繹史』 제2편 제10장 理氣大全及待人接物章 「踐實勸學文」(해월의 교설)			
9	辨論八節韻	강필도, 『東學道宗繹史』 제2편 제10장 理氣大全及待人接物章 「辨論八節韻」(해월의 교설)			
10	修道法	『해월신사법설』「수도법」과 몇 글자만 다름			
11	敬通	丙申 五月日	松庵 龜庵 義庵 奉分付謹通	吾道宗旨不用多言都在於誠敬信三端之意 … 一欺心卽欺天切勿欺心欺天事	송암, 구암, 의암이 발송한 경통
12	立義通文	壬辰年 十月 十七日 夜	1892년 10월 17일 밤에 쓰인 통문. 남계천이 작성하였다고 알려짐. 다른 필사본에는 '北接主人'이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음.[37]		
13	各道 東學 儒生 議送單子	壬辰年 十月日	감사 조병식의 『제음』이 10월 22일 나왔으므로 『의송단자』를 21일에 올린 것으로 이해됨.		
14	題音	十月 二十二日	10월 22일 충청감사 조병식의 제음.[38]		
15	甘結	十月 二十四日	10월 24일 조병식이 충청도 각 읍에 내린 감결.		
16	敬通	壬辰 十月 二十七日 夜	조병식의 감결이 나온 3일 후인 10월 27일 해월은 삼례집회의 개최를 결정하고 각지에 보낸 통유문.		
17	全羅道 參禮 道會所 各道 東學 儒生議送單子	壬辰 十一月 日	서병학에 의해 소장이 작성되기는 했으나, 탄압이 두려워 소장을 告呈할 마땅한 사람이 없자 右道의 전봉준과 左道의 柳泰洪이 자원하여 고정을 맡았다.(『동학농민혁명사 일지』, 『宗理院史附東學史』)		
18	題音		전라감사 이경식의 제음.		
19	各道內 東學儒生等	壬辰 十一月 日	동학 유생들이 전라감사 이경식에게 보낸 호소문		

20	題	初九日 (11월 9일)	전라감사 이경식의 제음		
21	甘結	十一月 十一日	전라감사의 감결.		
22	敬通	壬辰 十一月 十二日 未時	동학 지도부는 동학교도에 대한 침탈을 금지하는 전라 감사의 감결이 각 읍으로 내려진 다음 날인 11월 12일 完營都會所의 이름으로 敬通을 돌려 즉시 해산하여 귀가할 것을 지시하면서 특별히 5개항의 규칙을 정하여 하달		
23	敬通	壬辰 十一月 十九日 夜	교단의 해산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도들이 해산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때 교도들 사이에서는 복합상소를 하자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따라 교단에서는 11월 19일 밤에 다시 경통을 하달하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지시함.		
24	敬通 東學僉君子	壬辰 十一月 日	東學會所	右敬通諭事段天下修道之士 … 無至生梗之地幸甚	기존 교단사 등에서 보이지 않는 경통.
25	甘結	壬辰 十一月 二十一日	교도들이 해산하지 않자 11월 21일에는 전라감영에서도 “동학교도들이 아직 해산하지 않았으니 교도에 대한 토색을 엄금하여 安接케 하라”는 감결을 각 읍에 다시 내렸다.(『동학농민혁명사 일지』)		
26	敬通	十二月 初六日	삼례집회에 참가하였던 교도들이 보은 帳內里로 몰려들었다. 이에 따라 보은에 모여든 교도의 수가 너무 많자 12월 6일 교단에서는 접주의 신표를 가진 교도들에게만 도소 출입을 허가하는 경통을 하달.(『동학농민혁명사 일지』, 『天道敎會史草稿』)		
27	朝家回通		12월 6일 마련한 보은의 도소에서는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1892년 12월에는 정부에 朝家回通이라는 상소문을 보냈다.(『동학농민혁명사 일지』, 『天道敎會史草稿』)[39]		
28	一曰生 …		丈席所作道路節次	一曰生二曰食三曰倫四曰義 … 五不失天心無違天道之不息	추가 연구 필요.
29	修身齊家韻		右義庵丈作	一心有正大鬼神無疑 … 盡誠盡敬仁義自生	의암이 지음. 추가 연구 필요.
30	問答章	戊戌 正月 日(1898년)		或有問於余曰道自何方 … 有謬愼哉愼哉	추가 연구 필요.
31	夫道者 …		義庵丈所作	夫道者雖下憂之人聞則可矣言則可矣 … 能濟蒼生矣	의암이 지은 글. 추가 연구 필요.
32	理氣之章	강필도, 『東學道宗繹史』 제2편 제14장 松菴庚子設法(송암 손천민의 교설) 『해월신사법설』, 「天地人 · 鬼神 · 陰陽」과 일부 일치.			

33	修德行道法文	강필도, 『東學道宗繹史』 제2편 제10장 理氣大全及待人接物章 「修道行道法文」과 몇 글자가 다름. 송암의 교설로 1899년 반포된 것으로 보임.			
34	警心法	강필도, 『東學道宗繹史』 제2편 제14장 松菴庚子設法 「警心法」			
35	一蜂蟻 …	丙申 臘月日(1896년 12월)	龜庵 義庵 松庵 奉分付 謹通	一蜂蟻 … 外嚴內正無致指嫌事	구암, 의암, 송암이 발송한 통문
36	道家第一	丙申 菊月日(1896년 9월)	義庵	敬天이 한 집 渾率이 얼마나 ᄒᆞ던자 비록 비성ᄒᆞᆫ 兒히라고 조석 … 이 건사을 극진히 행ᄒᆞ게 ᄒᆞ옵소셔	의암의 통문.
37	敬通	己亥 正月日(1899년)	龜庵 義庵 松庵出他	右敬通事魚肉酒草丈席所禁 … 如是仰告 勤讀 七條孝養天地元氣事	1899년 정월 통문. 동학도들이 지켜야 할 7개조목.
庚子元月 念肆日 午時 龍岡 林仲七 獲麟(1900년 1월)					

규장각 해제에는 1896년부터 1899년까지의 통문이라고 하였지만, 1892년부터 작성된 통문이 확인이 된다. 해월이 교조신원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며 작성한 통문부터, 해월의 사후 송암·의암 등이 보낸 통문과 송암·의암 등의 교설이 실려 있다. 특히 1892년 교조신원운동이 전개된 초기인 1892년 10월 17일부

37) 이 통문은 해월이 교조신원운동을 공식적으로 전개하면서 동참할 것을 전국 각지의 동학 교도들에게 촉구하는 공문.

38) 동학은 異端일 뿐이며 '邪學의 餘派'라고 규정하고, 금단 여부의 문제는 조정에서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함.

39) 필자의 생각엔 동학 지도부에서 정부에 '朝家回通'이라는 상소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상소문에 대해 조정 즉 朝家에서 되돌려 보낸 문서라는 의미로 '조가회통'이라는 제목이 달린 것으로 보인다. 표영삼은 "동학 지도부는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일단 정부에 소장을 올려보기로 하였다. 12월 초에 장문의 소장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이 문건을 도소로 돌려보내 왔다. 규장각 소장 『동학서』 중에 「도소 조가 회통」이란 문건이 들어 있다. 이때 제출했던 소장이다."(표영삼, 2014 앞의 책, 286면.)라고 하였다. 표영삼이 「도소 조가 회통」이라고 한 것은 26번째 경통 마지막의 '도소'과 '조가회통'이 한 줄로 쓰여 있기 때문이다. '도소'는 26번째 경통의 발신처를 이르는 것이므로 '조가회통'이라고 해야 한다.

터 12월 6일까지 교단사에 활용되고 있는 대다수의 통문이 실려 있다.

12권은『東學敬通文』의 명칭으로 편철되어 있으며 총 17개의 통문이 실려 있다.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12권의 통문

번호	제목	날짜	작성자(발송인)	내용	비고
1	敬通平安道	己亥 正五月 日(1899)	龜庵出他 義庵 松庵出他	右敬通事酒肉魚草丈席所禁而近 來以耳目之拘碍 … 無至違命之地幸甚幸甚 己亥 正五月 日 龜庵出他 義庵 松庵出他 一魚肉酒草並爲禁斷 … 勤讀七條孝養天地元氣事	동학도들이 지켜야 할 7개 조목.
2	敬通淸北僉 道 儒侍經席	己亥 陽 月 日	義庵 龜庵適時出他 松庵	伏以龍潭水流四海源 … 千萬幸甚	청북(청천강 이북) 지역의 연원은 홍기조임을 밝힘.
3	敬通 平安道 大接主 洪基兆 奉分付謹通	己亥 至月 日	北接 後學 義庵 龜庵 松庵 忝處薰陶之列 荷蒙傳鉢之恩 奉承 龍潭水雲大先生主 劍岳 海月先生 遺訓 命敎謹通	蓋自上古以來先聖後聖 … 奉行踐實體用之地千萬千萬	천도인 춘하추동과 인도인 인의예지의 이치를 밝힘.
4	庚子 二月 二十四日 首接主 李貞漸 奉分付謹通	庚子 二月 二十四日	首接主 李貞漸 奉分付謹通	丈席 一ᄉᆞ람이세상에나셔일용횡ᄉᆞᄒᆞ ᄂᆞᆫ거시 … 후회之탄이읍게할이가ᄒᆞᆯ	동학도들이 지켜야 할 6가지 덕목(제가, 남녀의 도리 등)을 설함.
5	授受明實錄				『의암성사법설』, 「수수명실록」.
6	敬通于西關 胞中	庚子 正月 日	義庵	龍潭水流四海源 … 僉君子一從裕永基兆兩兄之指揮 無至眩惑之地千萬千萬	서관 지역은 김유영이 동학을 전파한 곳이지만 사람이 많아져 홍기조를 새로 대두목으로 삼음. 김유영·홍기조 두 사람의 지휘를 받으라는 통지.

7	敬通平安道中	庚子 元月 十二日 子時	北接 誠道主 松庵	昨年淸南淸北巡接時 … 皆入於口堯心桀之輩十分警惕百般操心千萬幸甚	김유영은 간사하고 순수하지 못한 자이므로 각 두목들은 그와 상종하지 말 것을 통지.
8	敬通淸北道接主李貞漸各該邑接主	庚子 元月 十九日	北接 誠道主 松庵	惟我三人雖曰德微 … 奸狡駁雜之弊幸甚	김유영이 마음대로 出帖한 것은 난법난도이며 이를 징계함.
9	敬通	庚子 六月 日	平安道 大接主 洪基兆 洪基億	丈席通諭一統輪鑑次齋呈 … 千萬伏望事謹通	각 동학군자들이 법을 준수하고 수심정기할 것을 당부.
10	敬通			龍潭水流 … 先生大道大義事	의암이 북접법대도주가 되는 내용. 종통설법식은 핵심간부 30여명이 모여서 7월 20일 거행.
11	敬通	庚子 八月 日	平安道 大接主 洪基兆 洪基億 奉分付謹通	右通諭事난 … 玄機을일치말事	의암이 7월에 북접법대도주가 된 것을 통지함. 국한문 혼용.
12	已往	己亥 十二月 二十八日(1899)	北三道便宜司	已往丈席命敎內春秋大先生享禮自大道宗家特爲奉祀 … 僉君子各爲銘念奉行無至犯科之地千萬千萬	수운의 춘추 향례 시의 제수에 대한 내용. 북삼도편의사는 이만식(이용구)의 직책.
13	敬通	己亥 六月 初十日	北三道便宜司	今番某宅의가서分付 … 祕密이通寄ᄒᆞ이오니부ᄃᆡ從然이아지마옵소서	사람이 곧 ᄒᆞ날님인 이치를 설함.
14	敬通	庚子 正月 日	便宜司 李萬植	右敬通事夫信者天地之質 … 切勿特相應千萬伏祝伏祝	향례 일자, 대두령의 제수 준비에 대해 통유함.
15	鮮示通意章		便宜司	夫道者與天地小無其間 … 無至見失落望伏祝伏祝	천도와 인도가 모두 食政에 있음.
16	敬通	庚子 二月 日	北三道便宜司	右敬通事段夫心和氣和吾道最務者也 … 無至怨尤幸甚幸甚	동학도들이 허무한 말에 미혹되지 말라 당부.
17	敬通	庚子 二月 日	孫秉欽 · 李萬植	大凡四端은 … 無至犯科ᄒᆞ옵기을千萬幸甚	김유영이 마음대로 출첩한 것은 동학도가 지켜야 할 四端을 어긴 것이니 그의 지휘를 받지 말 것.

12권의 통문은 해월 사후인 1899년과 1900년의 통문 17건이 실려 있다. 송암 손천민·구암 김연국·의암 손병희의 3인 지도체제 시 3인의 명의로 발송된 통문, 송암이 발송한 통문, 이후 동학의 단일 지도자가 된 의암이 발송한 통문, 나중에 진보회를 창설하고 시천교를 세운 이만식(이용구)[40]의 통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동학의 최고 지도자인 해월이 사망한 이후 의암 손병희와 구암 김연국을 중심으로 교권을 장악하기 위한 쟁투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통문을 살펴볼 수 있다. 황해도의 김유영은 김연국계였고 북삼도편의사 이만식은 손병희의 심복이었으며 평안도의 홍기조는 손병희를 지지하였다. 김유영이 비판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의 갈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12권의 통문에서 이만식의 활동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5. 의식

『東學書』에는 1890년대 말 당시의 동학 관련 경전, 교리해석, 통문과 더불어 의식 관련 자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 당시의 동학도들이 직접 필사한 문서라는 점에서 동학의 의식을 특별히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인 셈이다.

『東學書』에서 동학의 실천적인 측면인 의식·의례 관련 자료는 3권『東學呪文靈符』, 6권『東學聖經大典』, 7권『東學呪文解義·儀式』과 15권의『東學書式』·『東學靈呪』에 실려 있다. 3권부터 살펴보면 3권『東學呪文靈符』은 1권과 제목이 같으

40) 1868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이용구는 1890년경 동학에 입도한 이래 손병희를 따르며 동학농민혁명에도 가담하여 다리에 총상을 입기도 하였다. 1898년 충주에서 붙잡혀 옥고를 치렀으며 해월의 사후 의암 손병희와 함께 일본에 건너갔다. 귀국한 이용구는 1904년 손병희의 지시로 진보회를 결성하였으나 송병준과 합세하여 일진회로 조직을 바꾼 후 친일 행보를 이어가다 손병희로부터 출교를 당한 후 1906년 시천교를 세웠다. 1912년 일본에서 사망하였다. 최종성·박병훈 역주, 2020『시천교조유적도지』, 서울: 모시는사람들, 224-225면.

며 동학의 여러 주문과 술법 그리고 영부가 기록되어 있다. 「入道呪」, 「降靈呪」, 「平生呪」, 「大通心呪」, 「補祈呪」, 「下誦平生呪」, 「小通心呪」, 「通心呪」, 「明信經」, 「通靈呪」, 「護靈呪」, 「映明經」, 「選化經」, 「映明經」, 「賜神靈呪」, 「滅鬼呪」 등의 순서로 주문이 기재되어 있다. 그 다음의 '初入道者'로 시작하는 글은 동학의 초입자가 어떻게 주문을 송독하여야 하는 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엔 「縮地法」, 「還家呪」, 「劍歌」가 있고, 입도자가 지켜야 할 행실을 기록한 「入道行實」이 서술되어 있다. 그 뒤로는 「祝文」, 「修道映天之門」, 「逐邪呪」, 「呑服呪」, 「立道呪文」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여러 부적이 기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동학의 주문인 21자주 외 다양한 주문이 실려 있다. 동학의 핵심주문인 21자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뤄졌지만, 『東學書』에 언급된 다양한 주문에 대해서는 다뤄진 연구가 거의 없다. 이 주문들이 도교에서 유래하는 것인지 동학 전통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인지 그 유래에 대해 보다 분석이 필요하며, 언제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도 알기 어렵다.

필자가 3권에서 보다 살펴보려는 부분은 '初入道者'로 시작하는 글, 「入道行實」, 「修道映天之門」이다. 아래는 '初入道者'로 시작하는 글이다.

> 처음 입도한 자는 入道呪文[41]을 읽고 또 강령주문[42]을 읽는다. 降靈을 한 이후 평생주 3·7자[43]를 위주로 하며 나머지 주문은 일신에 靈氣가 충만한 이후 차례로 외운다. 만약 널리 주문을 외운 자가 혹 이 뜻을 밝히는 것에 그르칠까 두려우면 정심으로 무릎을 꿇고 송주하며, 만약 虛氣가 있다면 바람을 끌어들여 □□하고 마음을 밝게 하며 잊지 않고 기운을 바르게 하여 송주한다. 혹 욕심이 많은 자는 스스로의 영을 □□ 널리 주문을 외우는 것을 업으로 삼아라. 이것이 이른바 이름하여 도인이라고 하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기운을 바르게 하며, 그 몸을 닦고 그 본성을 따르며, 인의로부터 행하고, 붕우로부터 신임을 얻으며, 주문의 뜻을 밝게 안다. 주야로 송주하는 자는 더욱 빨리 도를 널리 이루며, 주문을 모자라게 하는 자는 비록 스스로는 도인이라 하지만 불신자이다. 장차 이후의 일은 물론이고 그 신세와 행동거지가 도인보다 높아진다.

41) 爲天主 顧我情 永世不忘 萬事宜

42) 至氣今至 願爲大降

43)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이로써 보고 마음을 밝히라. 劍歌의 뜻을 논하건데, 이 주문은 몸을 뜨게 하고 신을 제어할 수 있다. 마친 이후 주문을 많이 외우라. 매우 명심하여 위 글을 어기지 말라.[44]

내용인즉 입도자는 입도주문, 강령주문, 평생주문의 순서로 외운 다음 몸에 영기가 충만해지면 나머지 주문을 외우라는 것이다. 송주할 때는 마음과 기를 바르게 하고 외우며 주문을 많이 외어야 속히 도를 이룰 수 있으며 도인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劍歌」는 몸을 띄우고 신을 제어하는 주문이라고 하여「검가」를 일종의 주문으로 보고 있다.[45]

「入道行實」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입도주, 강령주, 평생주의 순서로 송주할 것을 설하고 있다.

입도행실

삼강은 군위신강 · 부위자강 · 부위부강이고 오상은 부자유친 · 군신유의 · 부부유별 · 장유유서 · 붕우유신이다. 입도자는 온전히 삼강오상을 위주로 한다. 처음 입도 시에 의관을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아 '위천주고아정영세불망만사의'의 13자를 일심으로 외운다. 주문의 많음은 오직 나의 정성 · 공경과 근태에 있다. 지금 이 주문을 만 독을 기한으로 하면 저절로 천령이 그 몸에 접하여 혹은 두통이나 구역질이 나거나 팔이 아픈데 모두 접령의 초기 기운이다. 이때에 다시 의관을 정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마음으로 "지금 영기가 접신하니 대강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독축하고 강령주 8자를 외운다. 온 마음으로 송독하면 마침내 마음이 황홀해지고 몸이 떨리는 기운이 있게 된다. 이처럼 하고 잠시 뒤 정신을 안정시키며 평생주 13자를 외운다. 방 가운데 靈位를 설하고 치제하며 방에서 내려와 정한수 한 그릇을 상 위에 올려놓고 동쪽을 향해 사배를 하며 주문을 외운다. 제수는 後錄에 따라 행하는 것이 가하다.[46]

---

44) "初入道者, 讀入道呪文, 又讀降靈呪文, 降靈後, 讀平生呪三七其字爲主, 其餘呪文, 充滿一身靈氣後, 第次誦之, 若有廣呪者, 或恐有誤此意明之, 正心跪坐誦呪, 而若有虛氣者, 引風□□, 明心不忘, 正氣誦之, 或多慾者, □其自靈, 廣呪爲業, 此所謂名之道人, 故正心正氣, 修其身率其性, 行於仁義, 信於朋友者, 明知其呪意, 日夜誦之者, 益速成道廣, 貧呪文者, 雖自名道人不信者, 將後之事莫論, 其身勢行止, 昇於道人, 以此觀之, 明心明心, 劍歌意論之, 此呪浮身能制神, 卒然後, 多讀之呪, 萬萬明心無違上文."

45) 이 3권에 실린 劍歌는 현재 전해지는 3종의 검가 중 하나이다. 하나는『천도교창건사』에 실려 있고, 다른 하나는『일성록』에 전해지며, 그리고 이 3권에 실린 검가이다.(표영삼, 2004『동학 1, 수운의 삶과 생각』, 서울: 통나무, 133면.)

내용에서 특히 주문을 1만 독을 하면 天靈이 접하고 신체에 이상 현상이 있게 되는데, 그때 독축하고 강령주를 외우면 마음이 황홀해지고 몸이 떨리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 다시 평생주를 외우고 靈位를 설하며 제수를 준비하여 치제를 행하라고 하였다.

「修道映天之門」 또한 『東經大全』의 「축문」을 시작으로 입도 시의 금기와 유의 사항에 대해 설하고 있다. 조상의 기일 이전에 치제하는 것이 가하며,[47] 입도 후에는 계란을 먹지 말고,[48] 입도 시에는 택일하지 않으며,[49] 입도자가 병이 나서 만약 약을 쓰면 도리어 해를 입고,[50] 입도자가 大降 전에 병이 있으면 천주에게 정성껏 고하면 자연스럽게 효험이 있다고 하였다.[51] 그리고 입도자는 삼강오륜을 위주로 하고 주문을 밤낮으로 외우면 더욱 빨리 성도하며, 體讀할 때 화장실에서나 누워서나 길을 가면서 항상 외우면, 성도할 때 일월을 보거나 성신을 보거나 운무를 보거나 신이한 구절이 저절로 입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였다.[52]

다음으로 7권 『東學呪文解義·儀式』을 살펴보면 동학의 교리 외 의식 관련된 내용은 「布德式」·「入德式」·「祭需式」과 「每日上法水法式」이다. 「布德式」은 『東經大全』의 「통유」에 실려 있는 것과 같지만, 「入道式」·「祭需式」은 『東經大全』의 내용과 다르다.

---

46) "三綱, 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妻綱, 五常,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入道者, 全以三綱五常爲主, 初入道時, 正衣冠端坐, 以爲天主顧我情永世不忘萬事宜, 十三字, 一心讀之, 多文惟在我之誠敬勤慢, 今此呪文限萬讀, 則自有天靈接其身, 或頭痛口逆臂痛□等, 皆是接靈之初氣也, 于斯時也, 更定衣冠, 小心跪坐, 心祝曰今則靈氣接身願爲大降, 爲讀降靈呪文八字, 專心誦讀, 則畢竟有心怳身戰之氣, 如是食頃之後, 仍定精神, 讀平生呪十三字, 房中設靈位致祭, 下堂淨寒水一盆置盤上後, 東向四拜讀呪, 而祭需依後錄行之可也."

47) "祖先忌日以前, 極誠致祭可也."

48) "入道後, 勿呑鷄子."

49) "入道時, 勿擇日."

50) "入道者有病, 若爲用藥, 反爲害."

51) "入道者大降前若有病, 則主誠告天主, 則自然效差."

52) "入道者以三綱五常爲主也, 此呪日夜誦之, 則益速成道, 但體讀之時, 雖如厠之時, 寢臥之時, 行路之時, 誦口不撤, 時時誦之, 則成道時, 或見日月, 或見星辰, 或見雲霧, 或神異之句自出於口."

入道式

포덕축문 弁紙 1장을 단상 위에 두고, 입도 시 당일 재계하며 (제수를) 갖춘다. 예는 동쪽 혹은 북쪽을 향하며 설위하고 분향하며 읍을 하지 않고 사배를 한다. 포덕축문을 읽으며 읍을 하지 않고 사배한 후 포덕축문 변지와 입도원 姓名紙 각 1장씩을 불사른다. 청수를 나누어 마시고 마친다. 입도 후 치제 절차는 설위하고 사배 후 독축하며 곧 강령주문 및 본주문을 외운다.[53]

祭需式

단술, 떡, 면, 생선, 과일, 포, 튀각, 채소, 향촉을 사용하여 설위하고, 고기 종류를 논하면, 꿩고기는 즉 쓸 수 있고 돼지고기는 혹 쓰인다. 제수의 다소는 힘써 행함에 따른다. 선생께서 포덕하시던 처음에는 소고기 · 양고기 · 돼지고기를 쓰셨지만, 계해년 8월 선생께서 제사를 고려하고 전도하신 날에 이르러, 이 도는 유 · 불 · 선 삼도의 가르침을 겸하기에 고기 종류를 쓰지 않도록 하셨다.

도인들은 매일 아침 · 저녁 식사 시에 告天하고 마음으로 "천하에 포덕하고 널리 창생을 구하여 도에 통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축원한다. 매일 도가에서는 아침 · 저녁으로 청수 한 그릇을 올리고 각각 평생의 소원을 축원한다. 매 삭망일에 치성제사를 하며 오직 흩어져 떨어진 낟알로 떡을 만들고 닭과 개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다. 매번 소변을 볼 때는 동북쪽을 향하지 않는다. 매번 새로이 떡을 만들 때는 告天하고 매사에 고천한다. 잊지 않고 매번 경외하는 마음으로 송주하면 천령이 자연스레 감응하는 이치가 있고 心和氣和하여 만사에 통하지 않음이 없다.[54]

---

53) "布德祝文弁紙一張置壇上, 入道時當日齋戒設俱, 禮向東或向北, 設位焚香, 無揖四拜, 讀布德祝文, 無揖四拜後, 燒布德祝文弁紙, 入道員姓名紙, 各一張式, 淸水分飮畢終, 入道後, 致祭節次, 設位四拜後, 讀祝而卽誦降靈呪文及本呪文." 참고로 『東經大全』에서의 입도식은 "入道之時, 或向東或向北, 設位致誠行祀, 焚香四拜後, 以初入祝文, 敬以受之"라 되어 있고, 치제식은 "入道後, 致祭節次, 設位四拜後, 讀祝而卽誦降靈呪文及本呪文."라 되어 있다.

54) "設其醴酒餠麪魚物果種脯藿菜蔬香燭用之, 而以肉種論之, 雉則例用, 猪則或用, 祭需之多小, 隨其力行也, 先生布德之初, 以牛羊肉通用矣, 至於癸亥八月先生顧祭傳道之日, 此道兼儒佛仙三道之敎, 故不用肉種事. 道人每當朝夕飮食盤, 告天而心祝, 曰布德天下廣濟蒼生道通, 每日道家朝夕, 淸水一器, 各祝平生所願也, 每朔望致誠祭祀, 而惟散落粒餻, 鷄犬勿侵, 每溲時, 莫向東北, 每當新物餻告天, 每每事事告天, 不忘每以敬畏之心誦呪, 天靈自有感應之理,心和氣和, 萬事無不通知." "設其醴酒 … 故不用肉種事" 부분은 『東經大全』「통유」의 '제수식'과 중간에 '祭' 자를 제외하고는 같다. 그 다음 부분은 『東經大全』에는 없는 내용이다.

每日上淸水法式

천주님 감응하옵소서. 천명을 쉬이 내리시고, 대선생님 출생을 쉬이 하옵소서. 무궁대도를 펴서 널리 창생을 구하게 하옵소서. 저희네 집 온 식구들이 죄를 많이 지었사오니[55]

살펴보면, 「入道式」은 『東經大全』의 「入道式」과는 다르며 『東經大全』의 「致祭式」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祭需式」은 『東經大全』의 「祭需式」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식사 시의 고천과 청수를 올리며 축원하는 내용 그리고 치성제사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每日上淸水法式」은 청수를 올릴 때의 축원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15권의 『東學書式』과 『東學靈呪』에는 동학의 의식과 주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東學書式』은 「食飮告」, 「呪文」,[56] 「八節句」,[57] 「本呪文」,[58] 「誠敬信」,[59] 「守心正氣」,[60] 「祝文」,[61] 「入道祝文式」 순으로 되어 있다. 이중 「食飮告」와 「入道祝文式」을 좀 더 살펴보겠다.

食飮告

천주님 음감하시고, 龍潭大先生님 음감하시고, 劒岳北極海月先生님 음감하시고, 천주님 쉬이 내리시고, 용담대선생님 쉬이 출세하여 널리 창생을 구하시고, 북극해월선생님 쉬이 출세하여 창생을 널리 구하시고, 내 몸이 죄를 지었지만 수신도통을 쉬이 쉬이 바라나이다.[62]

---

55) "天主感應 하옵소서 天命을 수이닉리시고 大先生님 出生乙 수이하게 하옵소셔 無窮大道乙 펴셔 廣濟蒼生 하게 하옵소셔 臣等네 집 渾室이다 作罪을 만이하여 쓰오니." 뒤에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나 더 기록되어 있지 않다.

56) "爲天主顧我情 永世不忘 萬事宜,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57) 『東經大全』의 「팔절」과 같음.

58) 7권 『東學呪文解義 · 儀式』의 '本呪文解義'와 같음.

59) 7권 『東學呪文解義 · 儀式』의 '座箴解義'와 같음.

60) 7권 『東學呪文解義 · 儀式』의 '守心正氣解義'와 같음.

61) 『東經大全』의 「축문」과 같음.

62) "天主님 음감하시고 龍潭大先生님 음감하시고 劒岳北極海月先生님 음감하시고 天主님 수이 닐이시고 龍潭大先生님 수이 出生하회 廣濟蒼生하시고 北極海月先生님 수이 出世하회

入道祝文式
龍潭大先生 无極大道大德 无爲化氣 永侍布德, 爲天主顧我情 永世不忘 萬事宜 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北極[63]海月先生主 无極大道大德 无爲化氣 奉命布德, 龍潭 淵源 无極大道大德 无爲化氣 奉敎布德, 都接主 金裕永 无極大道大德 无爲化氣 奉敎布德, 龍岡接主 洪基兆 无極大道大德 无爲化氣 奉敎布德, 嘉山接主 李貞○ 无極大道大德 无爲化氣 奉敎布德, 某邑 某面 某里 入道人 姓名 无極大道大德 无爲化氣 奉敎布德 某年 某月 某日
己亥年 七月 十三日 入道[64]
匙楪
醴酒 麵 須魚 山菜 燭
清水 太脯 野菜 降眞香
匙楪 餠 海菜 燭
龍潭 大先生主 慶州崔氏 諱字 濟愚氏 字 性默氏 堂號 水雲先生 道號 靑林道士 乙酉十月 二十八日 生辰 庚申 四月 初五日 得道
北接 大道主 慶州 崔公 御字 堂號 海月先生 道號 法軒先生 丁亥 三月 二十三日 生辰 己亥年 八月 二十日 入道人 白昌俊
九月 初日 入道 玄道洽

위「食飮告」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초기동학에서부터 수운은 식고에 대해 가르쳤고,[65] 해월 또한 '천지부모'[66] 등의 교설에서 식고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어떻게 식고를 하였는지 관련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단『天道敎任實敎史』에서 1929년에 천도교 교주였던 박인호(1855~1940)가 "생각하신 모신

廣濟昌生 ᄒᆞ시고 矣身이 罪을 자ᄒᆞ시ᄂᆞᆫ 修身道通을 수이 수이 발아나이다."

63) '北極'이라 쓰였는데, '北接'의 오기이다.

64) 6권『東學聖經大典』의 끝에 실려 있는「布德祝文」과 밑줄 부분만 다르다. 6권의「布德祝文」은 "龍潭大先生主 无極大道大德 无爲化氣 永侍布德 爲天主顧我情 永世不忘 萬事宜 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北接大道主 无極大道大德 无爲化氣 奉命布德, 西關 大接主 金裕永 无極大道大德 无爲化氣 奉敎布德, 龍岡接主 洪基兆 无極大道大德 无爲化氣 奉敎布德, 某邑 某面洞 居具 姓名 无極大道大德 无爲化氣 奉敎布德 某年月日"이다.

65)『崔先生文集道源記書』, "所修以敎者, 一曰食告, 一曰出必告入必告, 不爲用藥, 修心正氣, 去惡爲善, 物慾自去, 不探他利, 不取有夫之女, 不言人之過, 不食惡肉, 以信敬誠三字爲主也."

66)『해월신사법설』「천지부모」.

내 하늘님이 본래(本來) 오신 하늘님을 받드셔서 먹고 굴신동정(屈伸動靜)하시는 것이 곧 낸 줄을 투철(透徹)히 깨달은 고로 잠시라도 모신 내 하늘님 은혜(恩惠)를 잊지 않습니다."[67]라고 食告文을 정해 교도들에게 선포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1929년의 식고문은 해월의 교설인 '이천식천'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위 식음고는 천주·수운(용담선생)·해월의 응감(應感)[68]과 천주의 강림 및 수운·해월의 출세를 기원하며 개인의 도통을 염원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해월의 출세를 기원하는 점에서 해월이 처형된 1898년 6월 이후의 식음고로 보인다. 대접주 중 한 사람이었던 김낙철의 기록에 의하면, 1898년 해월이 관에 붙잡혀 처형된 후 그는 "대선생님에게 식고(食告)를 하고, 해월 선생님에게 식고가 없는 것은 제자의 도리가 아니다. … 하늘과 땅이 하나이고 영(靈)도 하나인데, 어찌 식고의 이치가 없겠는가. … 8월 12일부터 시작하여 식고례(食告禮)를 널리 행하였다."[69]라 하였다. 즉 이 기록에서 1898년 음력 8월 이후부터 수운과 더불어 해월에게도 식고를 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 해당 자료에서 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식고를 하였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식음고'는 당시 식고에 대해 알 수 있게 해 주는 주요한 자료이다.

그 다음 「入道祝文式」은 6권 『東學聖經大典』의 끝에 실려 있는 「布德祝文」과 일부 부분을 빼고 거의 같다. 용담대선생인 수운, 북접 해월, 도접주 金裕永, 용강접주 洪基兆, 嘉山 접주 李貞○ 다음으로 입도자의 거주지와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동학도들이 입도할 때 쓰였던 축문에 대해 알 수 있다. 입도시 입도자의 포덕 연원을 밝히는 점이 특징이다. 그 다음 설위도가 그려져 있으며 수운과 해월의 인적사항과 생일 등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입도자의 입도일과 성명(白昌俊·玄道洽)이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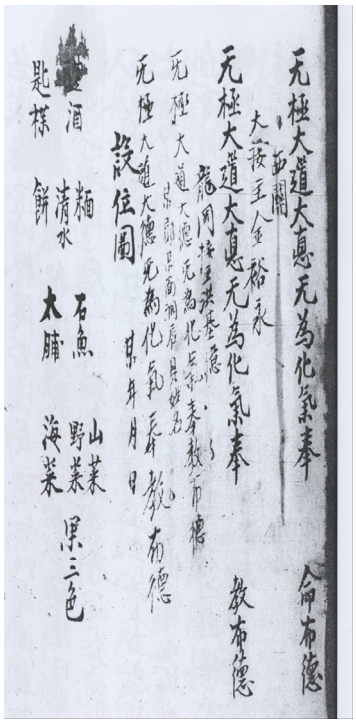
설위도에 대해 부연하자면, 『東學書』 전체에서 이 『東學書式』에서의 설위도를 포함하여 6권 『東學聖經大典』, 15권 『東學靈呪』에 각각 1종씩 총 3종의 진설도가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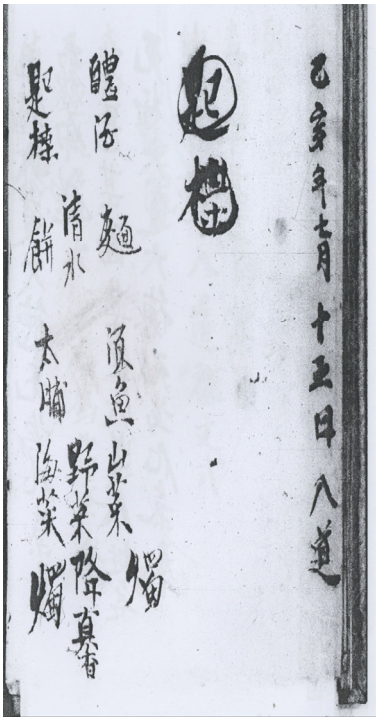
67) 최동안, 『天道敎任實敎史』, 12면.

68) 원문에는 한글로 '음감'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응감'의 오기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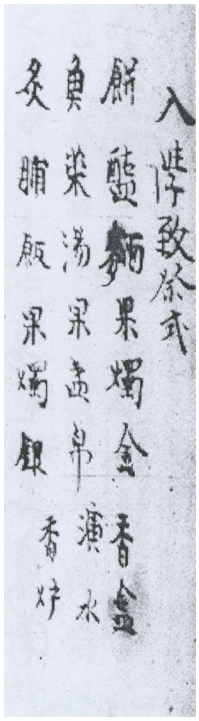
69) 김낙철, 『金洛喆歷史』「무술년 8월 12일」.



〈그림 1〉 6권『東學聖經大典』의 설위도



〈그림 2〉 15권『東學書式』의 설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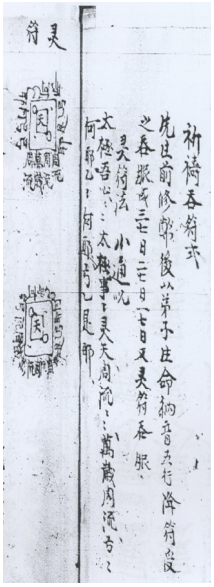
〈그림 3〉 15권『東學靈呪』의 설위도

〈그림 1〉은 6권『東學聖經大典』의「布德祝文」에 실린 설위도이고, 〈그림 2〉는 15권『東學書式』의 설위도, 〈그림 3〉은 15권『東學靈呪』의「入學致祭式」에 실린 설위도이다. 〈그림 1〉과 〈그림 2〉의 설위도는 거의 같으며 〈그림 3〉과는 다르다. 그림의 아래쪽을 致祭者가 서는 자리로 보면 시접이 벽쪽을 향하는 전통적 제사방식인 向壁設位이지만 위쪽을 치제자의 자리로 보면 해월이 1897년 음력 4월 5일 설한 向我設位法이 된다. 치제자나 신위의 위치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향벽설위인지 향아설위인지 분명하지 않다. 제수는『東經大全』에서 언급된 종류[70]와

70) '祭需式'에 醴酒, 餠, 麪, 魚物, 果種, 脯, 藿, 菜蔬, 香燭이 언급됨.

크게 차이가 없으며 몇 가지 다른 점은 생선을 石魚 또는 須魚로 특정한 것과 〈그림 3〉에서 醢, 脯, 炙, 金, 銀, 帛 등이 언급된 것이다.

15권의 『東學靈呪』는 「呑服呪」, 「入道呪」, 「降靈呪」, 「平生呪」, 「入學門」, 「焚香呪」, 「焚香符」, 「大通心靈呪」, 「降靈呪」, 「律令眞言」, 「明信經」, 「接氣呪」, 「望德呪」, 「影明經」, 「護靈呪」, 「通神呪」, 「祈禱呑符式」, 「靈符法 小通呪」, 「出行呪」, 「入家呪」, 「呑符法」, 「影光造成式」, 「造成眞言」, 「造成符」, 「入學致祭式」, 「祝文式」의 순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여러 부적이 그려져 있다. 그 다음에는 「開讀祝」, 「盟天誓地祝文」, 「刻呪文」, 「太乙呪」, 「奉獻正經」, 「滅鬼呪」, 「壓鬼呪」, 「火使經」으로 되어 있다. 3권 『東學呪文靈符』에서의 주문과 비교해 볼 때, 동학의 기본 주문인 「入道呪」·「降靈呪」·「平生呪」 외에 「大通心呪」, 「明信經」, 「護靈呪」, 「滅鬼呪」 등이 중복되어 있으며, '呑符' 관련 내용이 겹쳐 있다. 이 점에서 「大通心呪」 등 중복된 주문은 당시 동학 내에서 폭넓게 활용된 주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기도탄부식

呑符 관련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祈禱呑符式」에서 탄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71]

祈禱呑符式
선생님 앞에 폐백을 마련한 후, 제자의 생년 納音五行에 따라 降符를 받고 탄복한다. 혹 21일, 14일, 7일을 하고 또 영부를 탄복한다.[72]
靈符法 小通呪
太極吾心吾心 太極事事 靈天周流周流 萬歲周流弓乙 何耶乙乙 何耶弓乙是耶
靈符 (영부 그림)
이 부가 降靈한 후 매일 새벽 1장을 탄부하는데, 槐花紙[73] 사면

71) 3권에는 「呑服呪」라 하여 '以平仙藥奉令呑服 知萬事 差萬病 滅萬鬼 特信弓弓乙乙弓乙特引'이라고 되어 있으나, 15권에는 「呑服呪」라는 주문이 언급되지 않는다.

72) "先生前修幣後, 弟子生命納音五行, 降符受之呑服, 或三七日二七日一七日, 又靈符呑服."

73) 한지를 회화나무 꽃으로 염색한 종이인 槐黃紙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의 크기는 3촌 반으로 하고 혹은 太乙靈丹을 그려서 탄복하면 더욱 좋다. 붓은 양털이나 토끼털 붓을 사용한다. 이 부를 지성으로 탄복하면 몸에 광채가 입혀지며 병이 나으니 바야흐로 선단이다.[74]

동학의 영부는 수운이 종교 체험 시 '상제'로부터 받아 비롯된 것이다. 수운은 '상제'로부터 영부를 받았으며 그 영부로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구하라는 가르침을 얻었다.[75] 또한 수운은 종교 체험 이후 수차례 영부를 물에 타서 먹음으로써 몸이 윤택해지고 병에 차도를 얻는 체험을 하였다.[76] 이후 영부 수행의 전통은 이후 동학운동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77] 이러한 영부와 관련하여 위 인용문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영부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과 呑符의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즉 특정한 방법에 따라 이행할 것을 설명하고 지성으로 탄복하면 효험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 방식이 정형화 된 동학의 교리로 발전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당시 동학 민중들의 영부에 대한 생각과 실천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 기타

기타로 분류되는 권은 1권『東學呪文靈符』, 4권『東學徒上疏文 上』, 5권『東學徒上疏文 下』, 9-11권『東學文書』, 16-29권『東學文書』, 30권『上疏文 · 單子』이다.

1권『東學呪文靈符』은 겉표지를 제하고 2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규장각 해제는 "東學의 符籍으로'未如喚客到金'과 '明朝日出春風'을 각 글자마다 중복하

---

74) "此符降靈後, 每日淸晨當呑符一章, 槐花紙四面三寸半, 或太乙靈丹畵之呑服尤好, 筆則羊毫兎毛筆用之, 此符至誠呑服潤身差病, 方乃仙丹."

75)『東經大全』「布德文」, "吾有靈符, 其名仙藥, 其形太極, 又形弓弓, 受我此符, 濟人疾病."

76)『東經大全』「論學文」, "吾亦感其言, 受其符, 書以呑服則, 潤身差病, 方乃知仙藥矣."

77) 최종성, 2009『동학의 테오프락시』, 서울: 민속원, 158면.

여 쓰고 옆에는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속문자가 기록되어 있다."라 하고 있다. 1쪽에는 '未如喚客到金'이 2쪽에는 '明朝日出春風'이 반복적으로 쓰여 있다. 이 문구는 남송의 시인 陸遊(1125~1210)이 지은 「登東山」[78]의 일부이다.

1쪽 부속문자를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道傍觀者那得知 相逢疑是商山皓 龍眠居生畵", "天生我才必有用 千金散盡還復來 烹羊宰牛", "烹羊宰牛且爲樂 會須一飮三百杯 岑夫子", "靑天有月來幾時 我今停盃一", "靑天有月來幾時 我今停盃一", "靑天有月來幾時 我今停盃", "長吟搔首望明月 不學山翁醉似泥 到得城中燈火鬧 小兒拍手"이다. "道傍觀者那得知…"과 "長吟搔首望明月…"은 북송의 邢居實(1068~1087)의 시 「李伯時畵圖」의 일부이다. "天生我才必有用…會須一飮三百杯 岑夫子"는 이백의 「將進酒」이고, "靑天有月來幾時…"는 이백의 「把酒問月」의 일부이다. 2쪽에는 부속 글로 "靑天有來哉時我今亭盃"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이백의 「把酒問月」의 일부이다.

1권의 문자를 분석해보면 이백, 형거실의 시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으며 육유의 글이 반복적으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해제의 내용처럼 동학의 부적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아마 편철자가 동학의 주문으로 오해하여 『東學呪文靈符』라 권명을 붙인 것 같다.

4권과 5권에 대한 규장각 해제에는 "어떤 사유를 請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總統이라 하고 重言敷言으로 虛誕한 말을 늘어놓고 있으며 '聖聖聖聖聖上'으로 호칭하는 등 임금을 우롱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申泰益이 실제인물인지는 미상이나 특이한 上疏文이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형식과 두서가 전혀 없어 문맥을 파악하기 어려운 글로 상소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동학과도 관련이 없다. 편철자가 오류로 『東學徒上疏文』이라 권명을 부기한 것으로 보인다. 30권 『上疏文 · 單子』도 4 · 5권과 필체가 유사하여 동일한 인물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학문적 분석의 의미가 없는 문장이라 생각된다.

9-11권은 『東學文書』라 되어 있지만 동학과는 관련이 없고, 나인영(나철) 관련 문서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1쪽에는 '羅寅永 事件'이라 적혀있다. 규장각 해제에서

78) "老慣人間歲月催 强扶衰病上崔嵬 生爲柱國細事爾 死畵云臺何有哉 熟計提軍出靑海 未如喚客倒金罍 明朝日出春風動 更看晴天萬里開"

는 “大倧敎 창시자인 羅寅永(뒤에 羅喆로 개명)이 李完用 · 權重顯 · 李夏榮 · 閔泳綺 · 朴齊純 · 李址鎔 · 李根澤 등의 賣國大臣을 斬하려 한 사건의 것이다. 위 인물들에 대한 斬奸狀과 羅寅永이 쓴 것으로 보이는 연월미상의 10일분의 간단한 일기가 첨부되어 있다.「斬奸狀」에는「士民書」라는 印이 찍혀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나인영 사건’은 1907년 나인영 · 오기호가 중심이 되어 ‘自新會’를 조직하고 을사오적의 처단을 계획 · 실행하였으나 실패한 사건을 말한다.[79]「斬奸狀」은 이때 작성된 문서이다.

마지막으로 16-29권『東學文書』는 여러 권으로 보이나 안을 보면 권명이 적힌 쪽이 없다.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규장각 해제에는 “앞에는 羅寅永事件의 文綴로 압수한 것으로 보이는「金東弼所持」라 쓰인 봉투 등 7건에 賣國大臣의 「斬奸狀」 · 「同盟書」 · 「票」(借用證) 등이 있다. 「同盟書」는 士民會와 自新會 등의 것이다. 앞『권9』와 중복되는 것이나 여기에는 구체적인 문서들이 있다. 다음은 東學의 信票 1장과 東學 관련을 신원한 嶺底各邑儒狀, 賣國大臣을 斬하자는 自新會趣旨書, 客舍의 重修를 청하는 順興郡守 鄭夏默報告, 賣國大臣을 斬殺한 후에 自現하겠다는 請願書등이 있다.”고 하였다.

전반부는 9권『東學文書』와 유사하여 이완용 · 권중현 등에 대한「斬奸狀」과「同盟書」가 있다. 나인영이 작성한 몇 건의「同盟書」는 ‘大韓光武十一年’ 2월 또는 3월로 쓰여 있어 광무 11년인 1907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뒷부분에는 여러 성격의 문서가 혼재되어 있다. 해제에서 信票라고 한 장에는 “龍潭淵源 劍岳布德 北接大道主張 奉命傳授 李錫華 完山后人 辛酉生 奉受 布德天下 廣濟蒼生 保國安民之大道 庚子正月 日”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李錫華는 13권『東學聖經大典』의 필사자인 ‘李錫華’와 동일 인물로 보인다. 그 다음 문서인「嶺底各邑儒狀」은 해제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학에 대한 신원의 내용이 아니라 안동 · 예천 · 풍기 · 영천 · 봉화 지역의 유생들이 동학 지도자들이 민심을 선동하고 향민의 재물을 겁탈하고 있음을 알리는 문서이다. 학계에 알려져 있지 않은 자료로 병

79) 국사편찬위원회, 1957『대한계년사 하』,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24-225면.

신년(1896년) 9월 20일 작성되었다. 「自新會趣旨書」는 앞에서 말한 '自新會'의 취지문으로 李沂가 지은 것이다. 「順興郡守 鄭夏默報告」는 순흥 군수 정하묵이 '建陽元年 十月 十四日' 즉 1896년 10월에 보고한 문서로 객사의 중수를 청하는 내용이다. 「請願書」는 앞의 '나인영 사건' 관련 문서로 나인영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는 "龍潭大先生 无極大道大德 无爲化氣 永侍布德 … 无極大道大德 无爲化氣 奉命布德"라 기록된 장으로 동학의 '입도축문'이다. 마지막에는 이완용에 대한 「斬奸狀」이 실려 있다.

7. 나가며

이상 『東學書』 30권을 동학의 경전과 교리, 역사, 의식, 기타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1900년 말 경 평안도 지역의 동학도들이 관에 피착될 때 압수된 문서를 위주로 1907년 '자신회' 사건 때 압수된 문서가 섞여 편철된 『東學書』는 1890년대와 1900년대 초 당시 동학의 교리, 역사, 의례 등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이다.

첫째, 경전 관련하여서는 무자판 『東經大全』을 무술년(1898)에 필사한 6권 『東學聖經大典』, 계미 중춘판을 필사한 13권 『東學聖經大典』, 계미 중춘판을 1899년에 필사한 14권 『東學布德修德文』이 『東學書』에 포함되어 있다.

둘째, 교리와 관련하여서는 7권 『東學呪文解義 · 儀式』, 8권 『東學內修道』, 15권의 『東學理氣大全』에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7권의 권 제목에 '東學呪文解義'라 하였지만, 동학의 주문에 대한 해의는 「本呪文解義」 뿐이다. 「本呪文解義」의 다음엔 실린 「座箴解義」 · 「守心正氣解義」 · 「八節解義」는 『東經大全』의 「座箴」 · 「八節」에 대한 해석과 주요 교리인 '守心正氣'에 대한 해석이다. 이는 동학 관련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家和論」 · 「經脈論」도 다른 문헌에서 볼 수 없는 글로 「家和論」은 동학도들의 가정 화목을 강조하는 내용이며, 「經脈論」은 降靈과 降符의 의미 그리고 守心正氣의 이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월이 여성 신도들의 수칙과 수행에 대해 교설한「내칙」과「내수도」와 관련하여『東學書』에는 여러 권에 이 글이 실려 있다. 7권『東學呪文解義 · 儀式』에 한문으로「內修道」가 실려 있으며, 8권『東學內修道』에 한글로「ᄂᆡ칙이라」,「ᄂᆡ슈도 하ᄂᆞᆫ법이라」가 기록되어 있고, 15권의『東學理氣大全』에도「ᄂᆡ측이라」와「ᄂᆡ수도ᄒᆞᆫ 난볍이라」가 한글로 실려 있다. 특히 이 문서의 의의는 해월이 교설한 원본에 가장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8권의「빈궁샹율쟈」와 15권의「貧窮相恤章」은 곤궁한 사람을 서로 도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글로『東學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자료이다. 15권에 실린「理氣大全」은 동학의 사상을 담은 중요한 글로『동학도종역사』에도 실려 있다.

셋째, 역사와 관련하여『東學書』에는 수운의 행적을 역사적으로 기록한『大先生主文集』이 2권『雲水齋文集 · 通章』에 실려 있으며, 동학의 교단사로 활용될 수 있는 통문이 2권『雲水齋文集 · 通章』과 12권『東學敬通文』에 포함되어있다.『大先生主文集』은『水雲行錄』 및『崔先生文集道源記書』와 더불어 초기동학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천도교중앙총부의 소장본과 동일하다. 2권에 실린 통문은 총 37건으로 교조신원운동이 전개된 1892년 10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교단사에 활용되는 대다수의 통문이 실려 있으며 1899년까지의 통문이 들어있다. 일부 통문은『東學書』에만 실려 있고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워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12권에는 총 17건의 통문이 필사되어 있다. 해월의 사후인 1899년과 1900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동학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동학의 종교적 실천인 주문 · 의례와 관련된 자료는 3권『東學呪文靈符』, 6권『東學聖經大典』, 7권『東學呪文解義 · 儀式』과 15권의『東學書式』·『東學靈呪』에서 찾아볼 수 있다. 3권과 15권에서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 주문과 부적 등이 실려 있어, 당시 동학의 주술성이 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입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入道行實」·「修道映天之門」등의 글은 당시 동학의 입문자가 어떻게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7권에서도「入道式」·「祭需式」등의 문건을 통해 입도식과 제수의식을 어떻게 하였는지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또 15권의「食飮告」를 통해 주요 수행인 '식고'에 대해 알 수 있으며,「入

道祝文式」에서의 진설도를 통해 입도할 때의 축문과 진설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초기동학의 주요 수행인 탄부에 대해서도 「祈禱呑符式」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다섯째, 기타로 분류된 문서 중 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문서는 '자신회' 사건 관련 문건으로 관련 분야의 역사 및 대종교 연구에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필자는 특히 초기동학의 종교적 실천인 의례와 관련하여 본 『東學書』가 동학 연구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당시 평안지역의 동학도들이 필사한 문건으로 그 시기 동학도들이 어떻게 종교적 실천을 하였는지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된 후속 연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논문투고일(2021. 5. 13), 심사일(2021. 5. 25), 게재확정일(2021. 6. 12)

참고문헌

『金洛喆歷史』
『大先生事績』
『東經大全』
『東學道宗繹史』
『東學書』
『司法稟報(乙)』28
『侍天敎宗繹史』
『天道敎任實敎史』
『崔先生文集道源記書』
『海月神師法說』
국사편찬위원회, 1957『대한계년사 하』,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김지연, 2005「東學의 呪文과 靈符의 해석」,『동학연구』18, 한국동학학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3『동학농민운동 국역총서 11』,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박맹수, 1990「최선생 문집 도원기서와 그 이본에 대하여」,『한국종교』15,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박병훈, 2016「신종교」, 최종성 외,『종교 관련 규장각 소장 자료의 연구: 규장각 자료를 이용한 연구 성과 조사·정리 지원 결과 보고서』, 2016년 한국학연구 클러스터 구축사업.
박영학, 1994「19세기 동학통문 연구」,『한국언론학보』32, 한국언론학회.
신용하, 1980「동학 제2대 교주 최시형의『이기대전』」,『한국학보』6-4, 일지사.
오지영, 1973『동학사』, 서울: 아시아문화사.
윤석산, 2014『일하는 한울님-최시형의 삶과 사상』, 서울: 모시는 사람들.
이이화 해제, 1985『東學文書』, 여강출판사.
이찬구, 2001「동학의 ᄒᆞᆫᄂᆞᆯ님(천주)에 관한 연구-영부와 주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조규태, 1990「구한말 평안도지방의 동학-교세의 성장과 성격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동아연구』21,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최종성, 2009『동학의 테오프락시』, 서울: 민속원.
최종성·박병훈 역주, 2020『시천교조유적도지』, 서울: 모시는사람들.
표영삼, 2004『동학 1, 수운의 삶과 생각』. 서울: 통나무.

_____, 2014『표영삼의 동학이야기』, 서울: 모시는사람들.

Junkin, William M., 1985 “The Tong Hak”, *The Korean Repository* V.2, Seoul: The Trilingual Press.

Abstract

A Study on『*Donghakseo* (東學書)』in *Gyujanggak* (奎章閣) Collections: Through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Documents

Park In-gyu *

The『*Donghakseo* (東學書)』analyzed by this thesis mainly refers to the documents which consist of the *Donghak* (東學) documents of *Pyengan* (平安) province confiscated by the officials and the documents in the case of the '*Jashinhoe* (自新會)' in 1907, which is the collection of *Gyujanggak*. I analyzed this『*Donghakseo* (東學書)』, which contains materials of various personalities,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of *Donghak*'s scriptures, doctrine, history, rituals, and others.

The first, regarding scriptures V.6『東學聖經大典』and V.13『東學聖經大典』and V.14『東學布德修德文』are included in『東學書』. The second, with reference to doctrine V.7『東學呪文解義 · 儀式』 and V.8『東學內修道』 and V.15권『東學理氣大全』 have the relating contents. V.7 contains the interpretations of '座箴' and '八節' in『東學大全』and explanation of the main doctrine, '守心正氣'. "家和論" and "經脈論" in this volume cannot be found in other literature. "家和論" refers to the family reconciliation of Donghak devotees, and "經脈論" refers to *Gangbu* (降符).

The third, with reference to history『大先生主文集』, which historically records the activities of *Su-un* (水雲), is included in V.2. V2『雲水齋文集 · 通章』and V.12『東學敬通文』 also contain the documents written by the leaders of *Donghak*. Through these documents, we can utilize in reconstructing the history of *Donghak* from 1892 to 1900.

The fourth, in relation to ritual V.3『東學呪文靈符』and V.6『東學聖經大典』and V.7

* Visiting researcher, Center for Religious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東學呪文解義·儀式』 and V.15 『東學書式』·『東學靈呪』 have abundant contents. Volumes 3 and 15 contain many previously unknown spells and amulets, so we can confirm the magical nature of *Donghak* at that time. In addition, articles such as「入道行實」and「修道映天之門」, which contain contents related to initiation ritual of Donghak, are data that can confirm how the beginners performed at that time. In V.7, it is possible to examine how the entrance ceremony was performed through documents such as「入道式」and「祭需式」. Also, *Tanbu* (呑符), the main practice of early *Donghak* movements, can be examined in detail through「祈禱呑符式」.

The fifth, the parts of documents classified as others can contribute to the academic circles which related to *Daejongkyo* (大倧敎), which can be used as significant data for the study of the history of related field.

Among them, I think that this『*Donghakseo* (東學書)』can be used as a major material for the study of *Donghak*, especially concerning rituals, which are the religious practices of early Donghak movements. This is because it is a document written by *Donghak* devotees in the *Pyeongan* area at that time, which gives a vivid and detailed approach to how *Donghak* devotees practiced their religious practices.

Key words : Donghak, Donghakseo, Dongkyeongdaejeon, Donghak Tongmun, Ritual of Donghak, Na Cheol